



## 미 증시, 잭슨홀 관망심리에도 백신 효과 등으로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24일(화) 미국 증시는 7월 주택 지표 부진, 27일(금) 잭슨홀 미팅 관망심리에도, 테이퍼링 지연 기대감 지속,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델타 변이 충격 완화 전망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으며, 나스닥(15,019.8pt, +77.15pt)은 종가기준으로 사상 처음 15,000 선을 돌파(다우 +0.1%, S&P500 +0.2%, 나스닥 +0.5%). 업종별로는 에너지(+1.6%), 경기소비재(+0.8%), 소재(+0.7%) 등이 강세, 필수소비재(-0.8%), 부동산(-0.7%), 유틸리티(-0.6%) 등이 약세.

7월 신규주택판매는 +0.1%(MoM)로 전월(-2.6%)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예상치(+3.6%)는 큰 폭 하회하면서 높은 주택 가격, 금리 부담 등이 주택 구입 수요 개선에 제약을 가했던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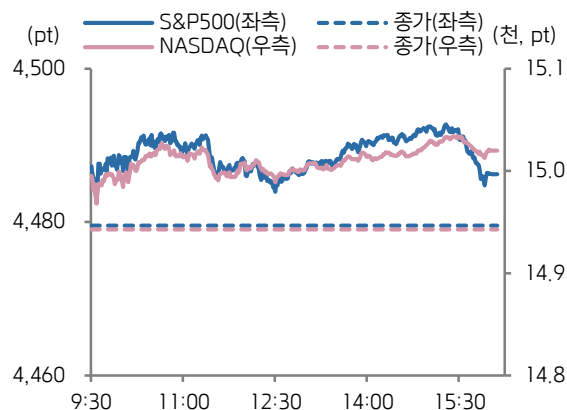
8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는 9.0로 전월(27.0) 및 예상치(25.0)를 대폭 하회했으며, 신규주문(25.0→5.0), 출하(21.0→6.0), 고용(36.0→18.0) 등 주요 세부항목들이 대부분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 다만, 임금(47.0→50.0)은 상승하면서, 리치몬드 지역 내 제조업체들이 구인난 극복을 위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

### 미국 증시 평가

8월 초까지만해도 경제 지표 부진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지난주 금요일 카플란 달러스 연은 총재의 테이퍼링 지연 시사성 발언 이후 경제 지표 부진이라는 악재성 재료를 오히려 연준이 인내심을 갖게 만들 것이라는 호재성 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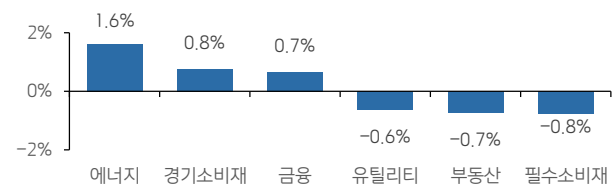
27일(금) 비대면 형태로 하루만 치를 것으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공식적이거나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음. 그러나 시장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그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

S&P500&NASDAQ 일종 차트(8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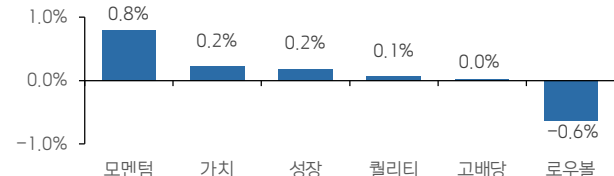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2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8월 24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2.2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4.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최근 2 거래일간 단기 급반등에 따른 차익실현물량 출회 가능성 2.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관련 밸류체인주들 주가 흐름 3.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에 따른 외국인 수급 호전 여부

##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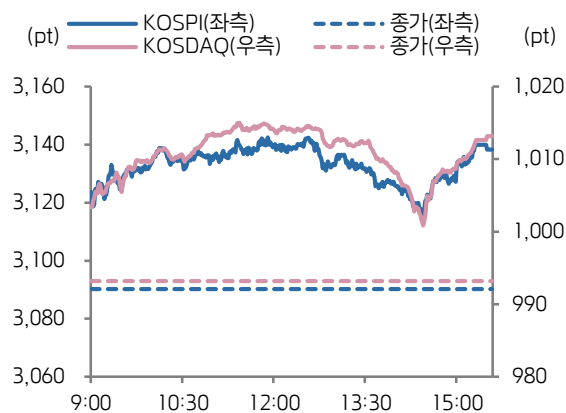
24 일(화) 코스피는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 완화, 화이자의 백신 전면 승인,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조성으로 장 초반부터 1% 넘는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의 3 년간 240 조 대규모 투자 소식까지 장중에 전해짐에 따라 급등 마감(코스피 +1.6%, 코스닥 +2.0%).

업종별로는 은행(-3.8%), 의약품(-2.5%)를 제외한 운수창고(+3.7%), 철강금속(+3.6%), 음식료(+3.6%), 건설(+3.3%), 기계(+3.1%) 등 전업종이 강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50 억원, 2,320 억원 순매수, 개인이 3,570 억원 순매도를 기록.

##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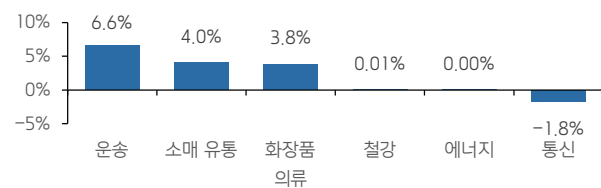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준비하는 대기심리가 짙어지는 가운데, 최근 2 거래일간 단기 급반등에 따른 단기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단기간에 급반등한 상황 속에서 잭슨홀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현금 비중 확대 니즈가 생겨날 것으로 보임. 다만, 전거래일 장중 발표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소식으로 관련 수혜 업종 및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수급이 몰리면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 금주 들어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에 대한 투자심리도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이를 감안 시 최근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난주에 비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라는 기존의 당사 전망은 유효

KOSPI & KOSDAQ 일중 차트(8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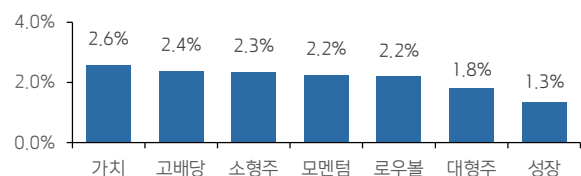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2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8월 24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중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승,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